

“한국인의 곡선 미학, 소나무에 담아 알리립니다”



임무상 화백 신년 초대전 '살어리랏다 저 솔처럼'... 내년 1월 23일까지

백의 작품 18점이 선보이는 이번 작품전은 1월 4일부터 1월 23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장은선 갤러리에서 마련된다.

임무상 화백은 자연을 관조하는 예술가이다. 미인도의 대가인 윤정 김홍중 화백으로부터 사사 받은 임 화백은 1985년 중앙미술대전에 입선하며 국내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한민국미술대전심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 (사)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임화백의 화풍은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염료를 그림의 재료로 사용하는 등 한국만의 색채를 진하게 나타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품들은 힘과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표현력에 있어서 커다란 온화함을 내포하고 있다.

임무상 화백은 전시에 앞서 “우리 민족은 딱딱하고 획일적이며 완벽함을 추구하는 서구의 직선문화에 비해 부드럽고 유연하며 넉넉함이 있어 곡선문화에 동화되어 있다”며 “어눌하고 투박하고 두루뭉술한 곡선 속에는 포근하고 따뜻한 정감이 서려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단아하고 질박한 미완성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한국미를 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임 화백은 이어 “이번 전시의 주제인 ‘살어리랏다 저 솔처럼~’은 소재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유희하고 관조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많은 스케치를 통해 얻어진 소나무와 주변 풍광들, 급강산 탐방 등을 통하여 얻어진 소재들을 탐구하고 재해석하여 탄생된 작품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작품의 주된 주제인 소나무는 한민족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온 국목(國木)과 같은 존재란 점에서 임 화백에게 주목받았다.

임 화백은 “늘 푸르름은 군자의 덕성을 상징할뿐더러 절개와 의지, 장수의 상징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부동의 1위인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소나무가 좋아 소나무를 사랑하는 솔바람회원이 됐고 전국 방방곡곡 산재해 있는 명목소나무와 소나무 숲을 찾아다니며 스케치 한 소나무 그림만도 수백 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임 화백은 “농촌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솔밭 속에서 뛰어 놀며 함께 한 정든 나무들이기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가난한 화가에게는 물질적 보시란 가당찮은 일이고 이렇게 서러한 소나무에 보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02)730-3533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임무상 작 '隣(Rhin)-月松(월송)'

“한국인들에게는 한국인만의 곡선의 정서를 가 있습니다. 어떤 테마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로움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적인 정서를 화두로 곡선미학을 화폭에 구현해 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임무상 화백(사진)이 새해를 맞아 작품전을 연다. ‘곡선미의 찬가, 살어리랏다! 저 솔처럼~’을 주제로 한 임 화

불자 아티스트 혼을 만나다

세종문화회관 내년 1월 29일까지 백남준 기획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은 오는 2016년 1월29일까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1932~2006) 선생을 조망하는 기획전 ‘백남준 그루브-흥(興)’을 연다.

신심 깊은 독실한 불자였던 백남준 선생은 독일에서 스승인 존 케이지를 만나 불교와의 인연을 맺고 생전 불교적 사상을 내포한 ‘파란 부처’ ‘TV 부처’ ‘테크니컬 부처’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세종문화회관이 지난 4월 미술관을 재개관한 후 선보이는 첫 기획 전시로 내년 1월29일 백남준 선생 타계 10주기를 앞두고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국가적인 스포츠 이벤트마다 그가 선보였던



위성쇼를 모두 볼 수 있다. 대표적인 TV로봇 작품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 중인 ‘보이스 보스(Beuys Vox)’ ‘피버 옵틱(Phiber Optik)’을 비롯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 설치됐던 ‘호랑이는 살아 있다-월금, 첼로’도 선보인다.

전시회 관계자는 “‘좌우간 당신이 나의 TV를 보게 된다면 제발 30분 이상 지켜보길 바란다’는 생전 백남준 선생의 주문에 따라 작품을 오래 감상할 수 있도록 의자를 마련했고, 편지하지 않고 충분히 친절하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02)399-1114

노덕현 기자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제52회 대중상 영화제 '유감'

다양성이 문화를 만든다



연말이면 두 개의 큰 영화제 시상식이 열린다. 대중상 영화제와 청룡 영화제이다. 그런데 올해 열린 제52회 대중상 영화제에서는 영화 <국제시장>이 10관왕을 차지했다. <국제시장>은 최우수작품상, 감독상(윤계준), 남우주연상(황정민), 남우조연상(오달수), 시나리오상(박수진), 녹음상(이승철·한명환), 촬영상(최영환), 첨단기술특별상, 기획상, 편집상(이진)을 받은 것이다. 주요 상을 모두 받았으니 가히 싹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올해에는 <국제시장> 말고는 그렇게 상을 줄 영화들이 없었는지 되짚어볼 수 없는 대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청룡영화제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청룡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은 <암살>이, 감독상은 류승완(<베테랑>), 남우주연상은 유아인(<사도>), 여우주연상은 이정현(<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남우조연상은 오달수(<국제시장>)가, 여우조연상은 전혜진(<사도>), 각본상은 김성제·손아람(<소수의견>), 음악상은 방준석(<사도>), 미술상은 류성희(<국제시장>), 편집상은 양진모(<부티 인사이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도>가 5관왕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골고루 나눠가진 셈이다. 그런 까닭에 대중상은 밀어주기는 비판에서, 청룡영화제는 나눠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밀어주기가 나쁜 것만 아니다. 다른 작품에 비해 그 작품의 예술성과 상품성이 월등히 뛰어났다면 응당 밀어줘야 한다. 그게 공정한 평가이다. 하지만 후보작들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기 장단점에 맞게 상을 나눠줘야 한다.

물론 <국제시장>이 다른 후보작들에 비해 작품성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보수적 담론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본다. 하지만 <국제시장>이 주요한 상을 모두 석권할 만큼 훌륭한 영화라고도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선, 흥행기록만 봐도 <국제시장>이 월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2015년에 개

대중상 <국제시장> '몰아주기'

다작 수상, 청룡영화제와 대비돼

<베테랑> '꽃피기' 귀감 삼아야

죽음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소재로 하여 부정(父情)의 궁극적인 의미를 되짚어보고 있다. 송강호와 유아인의 연기는 단연 압권이다. 이처럼 경쟁작이 많았음에도 <국제시장>이 대중상을 싹쓸이한 것은 유감이다.

그래서인지 대중상 영화제에서는 남녀 주·조연상 수상자전원이 불참해 대



대중상 영화제에서 싹쓸이 수상으로 논란이 일었던 '국제시장'.

봉한 영화의 누적관객수를 보면, <국제시장> 1,426만 명, <베테랑> 1,341만 명, <암살> 1,270만 명, <베테랑> 1341만 명, <사도>는 624만여 명, <내부자들> 620만여 명, <연평해전> 600만여 명 등 순이다. 1천만 이상 관객을 동원한 것은 <국제시장> 말고도 <베테랑>과 <암살>이 있었다.

누적관객수가 그 영화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좌표가 될 수는 없지만, 대중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제에서 영화를 평가할 때 대중성(혹은 상품성)과 함께 영두할 것은 작품성일 것이다. <국제시장>은 질곡의 근대사를 살아온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보내는 찬사이다.

작품성 면에서도 <암살>, <베테랑>, <사도>는 결코 <국제시장>에 뒤지지 않는다. <암살>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망한다는 공식을 깬 만큼 잘 만들었다. 초호화 캐스팅이 아깝지 않을 만큼 영화 속 캐릭터들이 각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베테랑>은 한국 액션영화의 베테랑 감독답게 재벌에게 통쾌한 한 방을 때기고 있다. <사도>는 사도세자의

리 수상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체 24개 부문 가운데 11개 부문을 대리 수상했다고 한다.

올해 청룡영화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 출연한 이정현이 여우주연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수상은 연기가 돋보였던 이정현에게 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다양성 영화(작품성이나 예술성이 뛰어난 저예산 영화인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게 주는 것이기도 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다문화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마치 <법화경> <약초유품(藥草喻品)>의 풀꽃의 비유와 같은 것이다.

“들뜬에 나가보면 풀들이 수없이 피어 있다. 저마다 빛깔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이름도 다르다. 그런데 이 들뜬에 내리는 비는 어느 풀에는 내리고 어느 풀에는 내리지 않는 그런 비가 아니다. 들뜬에 한번 비가 내리면 이 비는 어느 풀 하나 구별 짓지 않고 고루고루 내린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이 풀들이 비를 맞아들여 저마다 자기 성질에 맞는 꽃과 열매를 맺는다.”

유용오 작가



붓다 북

불교 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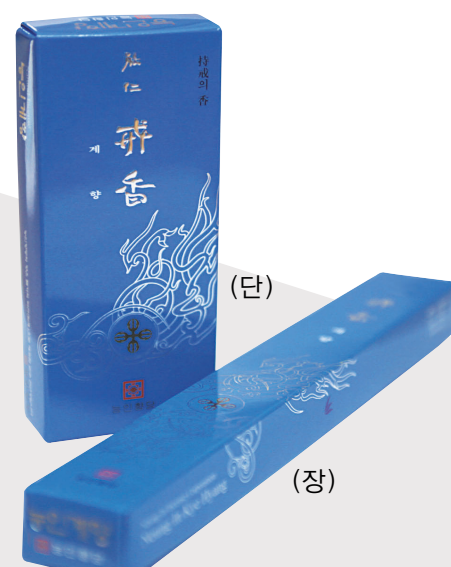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벤더

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료,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리아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 단)
· 규격 : 장 (24.5cm) 약 1시간 10분 / 단 (14cm)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헌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